

# “어젯밤 남편의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  
눈물바다된 해남 가보니**

유족들 시신 보고 오열·통곡  
생사 확인 가족들 발걸음 이어져  
해경 출장소는 불꺼진 채 적막

“어제 밤 7시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날이 늦어서 복귀한다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6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 어선 돌고래호(9.7t·해남선적) 사망자 4명의 시신이 운구된 해남우리병원. 이날 오후 4시께 돌고래호 선장 김모(46·해남군)씨의 부인 A씨와 가족들은 이를 전 집을 나섰다. 추자로 돌아온 남편과 마주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해남종합병원으로 운구된 시신 4구에 남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흑시나 하는 희망도 가져왔지만 주검으로 변한 남편과 마주하자 희망은 곧 무너져내렸다. 시간이 흐르자 이 병원에 안치된 또 다른 사망자 3명의 가족이 찾아들면서 병원 곳곳엔 울음소리가 가시질 않았다.

해남우리병원과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해남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에는 오전부터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 곳에는 주말을 맞아 추자도 해역으로 낚시를 떠났던 허모(47·부산)씨 등 4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이날 오전 소식을 듣고 해남으로 내려온 돌고래



6일 돌고래호 전복 사고 사망자의 시신이 이송된 해남병원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해남=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 탑승자 가족 일부는 장례식장 현관에서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 모두 집에서나 입원을 법한 가벼운 옷차림에 조조한 모습이었다.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의 신원이 정오 무렵부터 속속 확인되자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은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돌고래호 탑승자 가족 상당수는 이날 새벽 소식을 듣고 해남으로 내려와 돌고래호가 출항한 남상항 부두, 대책본부가 마련된 해남군청 등을 헤매다 마침내 병원으로 돌아온 길이었다.

항구로 발걸음을 옮길때만 해도 낚싯배가 떠났

던 자리인데다 원래 돌아오기로 한 목적지였으니 무언가 소식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항구는 텅 비어있었다.

해남읍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북평면 남상항은 소규모 시골 부두로, 주로 전복 양식을 위한 어선들과 10t급 이내의 소형 낚시 어선들이 입은 낚시객들은 전복된 배 주변 해상에 동돌 떠 있었다. 한편 사고 지점인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10명의 시신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헬기로 해남공실운동장으로 옮겨진 뒤 곧장 해남종합병원(4명)과 우리병원(4명), 우석병원(2명)에 안치됐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해남읍 다목적생활체육관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대기소가 마련됐다. 돌고래호 탑승자 10여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실종자 가족들은 대책본부가 마련된 해남군청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촉하거나 비상 근무에 들어선 공무원들에게 가족의 생사 여부와 탑승 여부를 재차 확인하면서 다소 격앙된 모습이었다.

한편 사고 지점인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10명의 시신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헬기로 해남공실운동장으로 옮겨진 뒤 곧장 해남종합병원(4명)과 우리병원(4명), 우석병원(2명)에 안치됐다.

/해남=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여수 백도 해상 어선 화재 선원들 침착한 대응 7명 모두 무사 구조

“질퍽 같은 밤에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데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6일 오전 0시27분께 여수시 삼산면 백도 동쪽 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사천 선적 39t급 ‘205홍성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인데다 비바람과 파도가 강해 대형잠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7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들의 사투는 3시간20분동안 이어졌다. 새벽 0시27분께 기관실에서 연기가 새나오는 것을 CCTV로 확인한 선장 천모(56)씨. 천씨는 자고 있던 선원을 깨운 뒤 기관실 화재 진화를 시도했지만 기름에 불이 옮겨 붙어 실패했다. 그 사이 기관장 이모(38)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길은 갑판 전체로 번져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선장은 퇴선 결정을 내렸고 경험 많은 선원 김모(64)씨가 구명 뗏목을 바다로 투하해 탈출했다. 거센 불길에 배 안에 있는 가스통이 터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5분여 만에 안전하게 7명 모두 구명뗏목에 몸을 싣는 데 성공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덮개는 지퍼가 고장 나 빗물이 새치게 들어오고, 높은 파도로 바닷물도 쉬지 않고 흘러들어들었다. 선원들은 구명뗏목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잘라 번갈아가며 뗏목 안의 물을 퍼내며 버텼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려고 조명등 5발을 쬐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라이트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던 중 때마침 해경과 함께 수색에 나선 ‘205홍성호’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전복된 배 위 온힘 버텼지만...한사람씩 바다로 떨어져나가”

**생존자 증언으로 본  
긴박했던 사고 순간**

돌고래호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사고 순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생존자 이모(49·부산)씨가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한 것은 2시간가량인 오전 3시 59분께다. 배에서 내린 이들은 당일 오전까지는 추자도 인근 섬에서 돛을 잡는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 약하게 시작된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오후 6시에는 빗줄기가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로 변했다. 폭우가 쏟아지자 이들의 일정도 영클어지기 시작했다.

낚시객들의 의견에 따라 돌고래호의 선장 김철수(46)씨도 서둘러 되돌아갈 준비를 했다. 오후 7시 돌고래호는 낚시객 등을 태우고 신양항(추자)을 출발했다. 파도가 2m가 넘어 배가 심하게 요동쳤지만, 안심했다. 당일 새벽 왔던 길이었다. 선장 김씨가 같은 시간대 다른 낚시객을 태우고 추자도를 출발한 돌고래호(5)와 자주 통화하며 ‘안전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다. 선수 쪽 아래 선실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9명가량이 선실에 있었다. 구명조끼는 비에 젖어 있어 입기에 불편해 옆에 뒀

폭우에 일정 변경해 해남 귀환  
돌고래 1호와 통화하며 운항  
출항 20~30분만에 “광광”  
뒤집힌 배 위 “살려달라” 외쳐  
구조나선 선장은 시야서 사라져

다.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생존자인 박모(38)씨도 당시 선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출항한 지 불과 20~30여분 지났을까, 배가 ‘광광’ 소리를 내며 옆으로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완전히 전복됐다.

해경은 돌고래호 선장 정모(41)씨가 오후 7시 44분과 46분에 돌고래호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는 “잠시만”이라는 짧은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보아 이 시각쯤으로 추정했다. 돌고래1호가 오후 7시 38분께 돌고래호 선장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상 기상이 좋지 않으니 추자도 북쪽 끝인 횡간도 옆 무인도 녹서(노린여)에서 만나 같이 해남으로 돌아가자고 통화한 직후였다. 갑갑한 밤, 해상에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자 낚시객들은 동요했다. 이씨와 박씨는 사고 이후, 출근

전복된 배 위에서 간신히 몸을 버티며 의지했다. 선장 김씨 등 다른 4명가량도 뒤집힌 배 위에서 같이 있었다. 나머지 낚시객들은 구명조끼를 허겁지겁 입거나 꺼내 든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낚시객들은 전복된 배 주변 해상에 동돌 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어 보였다.

선장 김씨는 “배가 항해를 하면 어떤 무선 통신이 해경과 연결돼 있어 해경이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고 모두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말라, 해경이 금방 올 것이다.” 선장은 이씨 등에게 힘주며 계속 말을 했다.

이씨 등은 컴컴한 해상에 “살려주세요”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구조의 손길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파도는 계속 높게 일었다. 전복된 배 위에 있던 사람들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다로 떨어져 나갔다. “30분만 더 버티보자, 1시간만 더 버티보자”며 서로를 격려했던 중 선장 김씨도 다른 이들을 구조하러다 바다에 빠진 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씨는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살 기미가 없는 것 같았다. 해경 함정이 멀리 보였지만, 우리 쪽으로 빛을 비추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 추자도 가는 전남 뱃길은

**해남 남성항·진도 서망항 등 4곳  
대부분 9t 규모 낚싯배 타고 이동**

돌고래호가 침몰한 제주 추자도 해역은 갯바위 강태공들에게는 ‘최고의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추자도와 제일 가까운 해남 남성항·땅끝항·어란진항과 진도 서망항 등 4곳에서 낚싯배를 타고 이동한다.

낚시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항구에서 운항 중인 낚시 어선을 예약하며, 배로는 기상 상황에 따라 1시간30~45분가량 소요된다. 대부분 돌고래호와 같은 9.7t 규모 선박(정원 22명)이 주로 운행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5t 규모 선박(12명)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겨울에는 새벽 3~5시 사이, 여름에는 1~3시 사이에 해남과 진도에서 배가 출발하고, 추자도에서는 대부분 오후 2시를 기해 철수한다.

추자도는 참돔과 돌돔, 농어 등이 잘 잡히는 가을과 겨울철이 낚시의 적기다.

강태공들은 보통 당일 또는 1박2일, 길게는 3박4일 일정으로 추자도 갯바위 낚시에 나선다. 당일엔 왕복 요금이 7만원이고, 현지에서 갯바위로 이동하는 배를 이용하기 위해 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고흥 백일도 해상 2명 탄 선박 실종

6일 오후 5시 30분께 고흥군 과역면 백일도 앞 해상에서 소형 선박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에는 2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과역면을 출발해 진도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경과 119 구조대는 인근 해역 등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대포폰’ 이용 뇌물 채징 세관공무원

○여수경찰청은 외항선에 면세 유류 공급하는 선박업체들로부터 통관절차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관공무원 A(58)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업체 사무장 48명을 불구속 입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금유대리점(선사) 사무장 48명으로부터 1회당 5만~20만원씩 모두 380여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아채징 혐의.

○A씨는 금유대리점에 대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승인과 관리 업무를 하면서 속칭 ‘대포폰’에 수백개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통관 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금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해 뇌물을 요구.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 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5천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46만 매매가 8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코너, 내부 깨끗)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① 1층 (커피숍 입점완료)  
② 2~5층 (사우나, 주택)  
③ 6~7층 (설계사, 건설사)

**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